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2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빌 1:4, 8, 18, 25, 27, 2:2, 12-13, 17-18, 28-29, 3:1, 4:1, 4, 10, 15-16

- I. 엄밀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주로 우리의 혼(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다.
 - A.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며,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결과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책이다 — 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 B.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하였다. 그들이 복음의 확산에 참여한 것은 사도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한 것을 포함했다 — 빌 4:10, 15-16.
 1.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단체적인 생활이다.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이 교통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은 처리된다.
 2. 우리가 말할 때든지 잠잠할 때든지,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존재와 전 인격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 빌 1:20, 4:22, 비교 고후 3:3.
 - C.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 빌 1:27.
 1. 복음의 일을 위해 한 혼이 되고 같은 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혼이 된 형제였다 — 빌 2:19-21, 비교 2:30.
 2. 한 혼이 되려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에 더 나아가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한다 — 고후 3:18, 롬 12:2.
 3.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생각과 결정에서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 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한,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안에 있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4.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질 때, 이러한 하나는 확신을 주고 굴복시키고 매혹적일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 D.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다. 음식을 억지로 먹지만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 II.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 빌 1:20-21, 2:2, 5, 3:7-14, 4:13.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 것(고후 3:14)과 눈먼 것(4:4)과 반역적인 것(10:4-5)과 부패된 것(11:2-3)에서 구출되어야 한다.

- B.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 고전 1:10, 빌 3:8-9, 15, 4:2.
- C.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한 가지 것, 곧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딤후 1:3-4, 골 3:10-11.
- D.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사실상, 세 단계로 된 총명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신성한 경륜이시다(요 1:14, 고전 15:45 하, 계 1:4, 3:1, 4:5, 5:6). 하나님의 갈망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골 1:17 하, 18 하, 고후 12:2 상, 2:10, 3:3).
- E.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빌 4:2), 사도는 이것 때문에 염려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기쁨이 넘치게 해 줄 것을 부탁했다(2:2).
 - 1. 한 가지 것 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교회생활, 곧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가득해야 한다.
 - 2. 빌립보의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빌 2:2). 그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같은 사랑을 가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절되고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 3. 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곧 혼 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합당한 혼, 곧 다른 성도들의 혼과 하나인 '함께하는 혼'을 가져야 한다.

III.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정들,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을 상징하는 그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 빌 1:8.

- A.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그분의 속부분들에서 체험하신 것에는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즐거움과 느낌이 포함된다 — 시 16:3, 7(각주 참조).
- B.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았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속부분들, 곧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 — 골 3:12.
- C.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는 몸의 생활에 대한 그림을 본다 — 몬 7, 10-12, 20.
 - 1.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다. 바울은 그를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다 — 몬 10.
 - 2. 바울이 그의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 때, "내가 그(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 몬 12.
 - 3.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갔다. '심장'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빌립보서 1 장 8 절에 나오는 '속부분들'과 같다. 이 말은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상징한다 — 골 3:12.
- D.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몸에게 가지신 느낌이 몸에게 바울이 가진 느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 고후 12:15.
- E.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몸과 동일시한다면,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완전히 몸의 생활일 것이며,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 — 마 16:24, 엡 4:16.
- F.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에게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몸에게 대한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것이다 — 고전 12:26-27, 롬 12:15.

IV.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 빌 2:12-13.

- A.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뜻을 세우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뜻을 세움’을 일해 넣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뜻을 세우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 B. 우리는 굴복되고 부활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신다.
- C. 우리는 아가 4 장 4 절에 있는 예표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의지를 볼 수 있다. 이 절은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에 관해서 “그대의 목은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 천 개의 작은 방패와 /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도오.”라고 말한다.
 - 1. 성경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처럼 완고하고 교만하다(사 3:16). 이처럼 목은 사람의 의지를 가리킨다. 주님은 사람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
 - 2. 목이 망대와 같다는 것은, 추구하는 이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될 정도로 그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추구하는 이의 의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데로 이끌렸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 3. 망대 안에 두어진 무기는 원수가 믿는 이의 의지를 강탈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승리를 상징한다.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용사들은 힘을 의미한다.
 - 4. 요약하면, 아가 4 장 4 절은 믿는 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하고, 믿는 이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망대만큼 강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믿는 이는 깨어 경계하고 있으며, 원수가 자신의 복종하는 의지를 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D.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순종하는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노아가 건조한 방주의 예표에 나타나 있다.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지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빌 2:8, 12-13.
 - 1.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는 다만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사람인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다 — 창 6:14, 고전 12:12, 엡 2:15-16, 골 3:10-11.
 - 2.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홍수로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 창 8:13-19, 벧전 3:20.
 - 3.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지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하여 오늘날의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고(마 24:37-39, 눅 17:26-27, 살전 5:3)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눅 21:36, 계 3:10)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